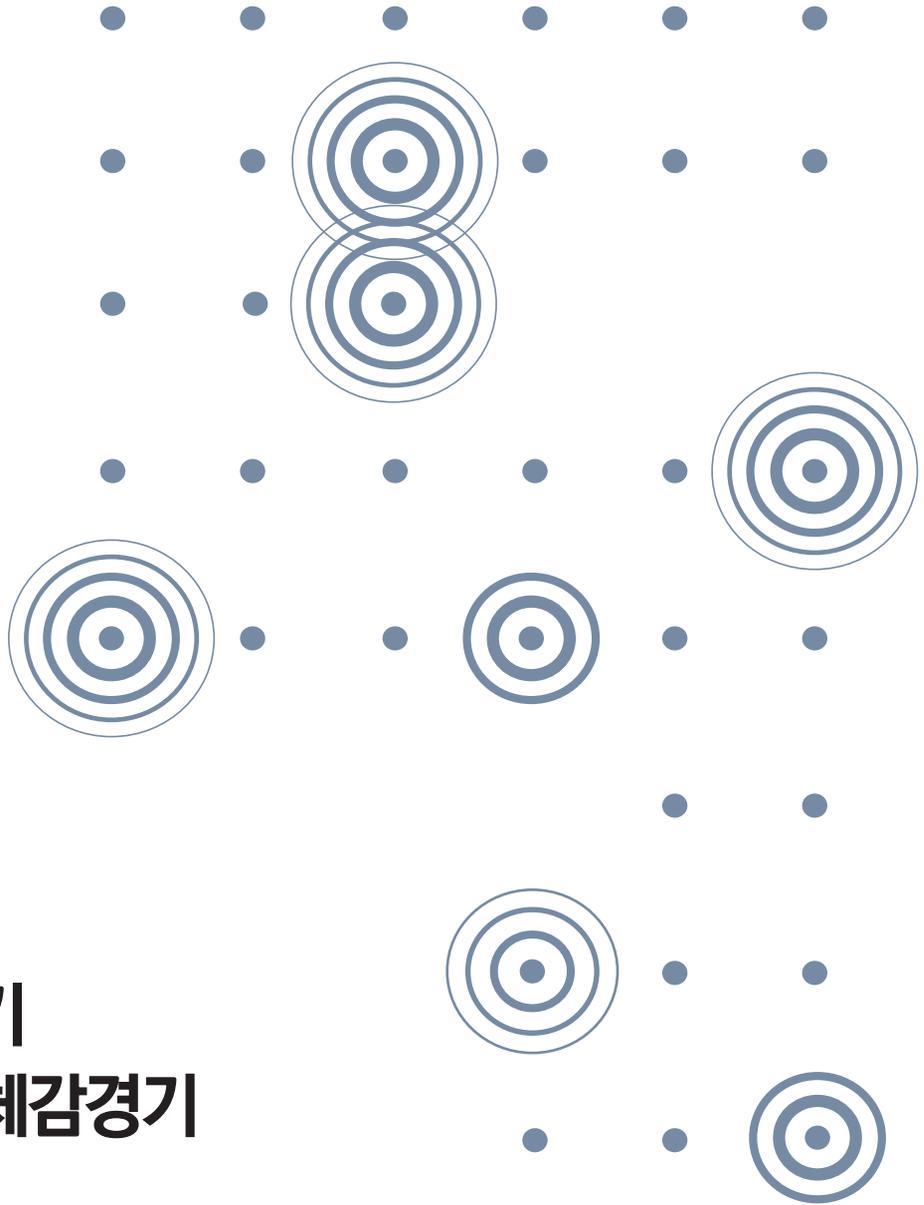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89호 2024. 2. 5



—
2023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89호

2023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발행인 윤혁렬
편집인 백선혜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4년 2월 5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2. 5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89호

2023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9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22
부록 2. 2023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3

요약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해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2023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며 2020년 3분기 이래 성장세를 지속했다.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23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15.6%를 기록하며 2023년 최고치를 경신했고, 10월에도 전년 동월보다 7.8% 상승한 140.4를 나타내며 최근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전체 취업자는 10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 청년층 취업자도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2023년 10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는 52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의 510만 7천 명보다 11만 6천 명이 증가한 522만 3천 명으로 나타나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7개월 간 감소세를 이어온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도 2023년 8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10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의 86만 7천 명보다 3만 5천 명 증가한 90만 2천 명으로 나타나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전 분기 대비 하락

2023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4.4p 하락한 91.5를 기록했다. 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3.0p 내린 82.5로 2분기 만에 상승세를 반납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91.3으로 전 분기 대비 4.0p 하락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0.0으로 전 분기 대비 4.3p 하락했고,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 대비 7.0p나 하락하며 3분기 동안 이어온 상승세를 반납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하며 각각 114.0, 85.5를 나타냈다.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5.0으로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했고,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8.0p에 달하는 하락을 보여 지난 3분기 동안 이어온 상승분을 반납했다.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I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¹⁾

서울 서비스업 생산은 2023년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전 분기보다 축소

- 2023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0²⁾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증가폭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며 2020년 3분기 이래 성장세 지속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0%), ‘운수 및 창고업’(21.9%), ‘부동산업’(14.1%) 등이 전 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견인
 -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8%), ‘교육 서비스업’(-2.8%)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표 1] 서울시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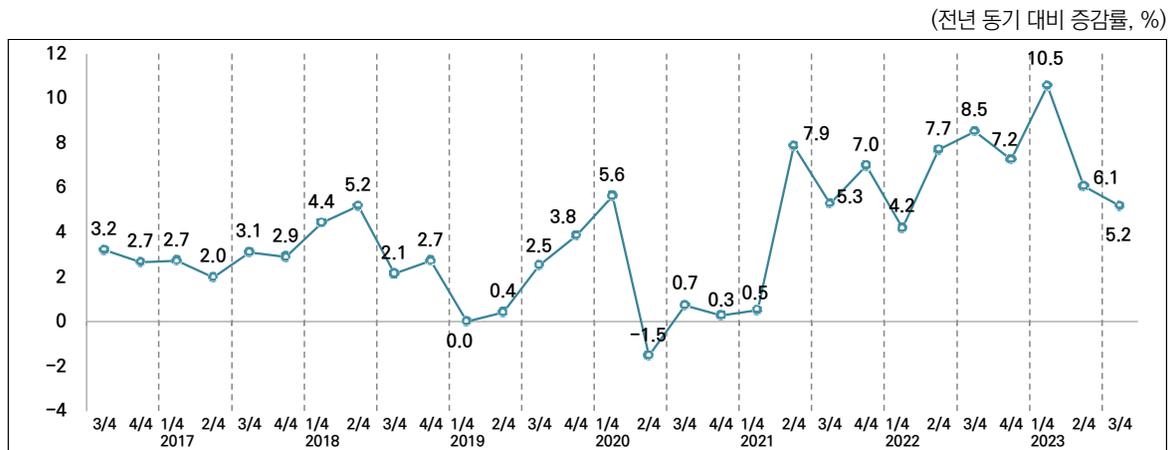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p)
총지수	113.2	104.3	112.0	112.2	121.4	115.3	118.8	118.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7.0	4.2	7.7	8.5	7.2	10.5	6.1	5.2

주 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 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 1) 2023년 3/4분기 기준, 「수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분기별로 자료를 공표함에 따라 2023년 2/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인 반면, 월별 공표인 「제조업생산지수」는 2023년 7월이 가장 최근 자료임
- 2) 통계청은 2023년 5월 최근의 시·도별 서비스업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공표함. 또한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³⁾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23년 8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10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8월에 -8.1%였으나, 10월에 -9.0%로 감소폭이 확대됨

[표 2] 서울시 제조업생산지수(원지수)

(단위: 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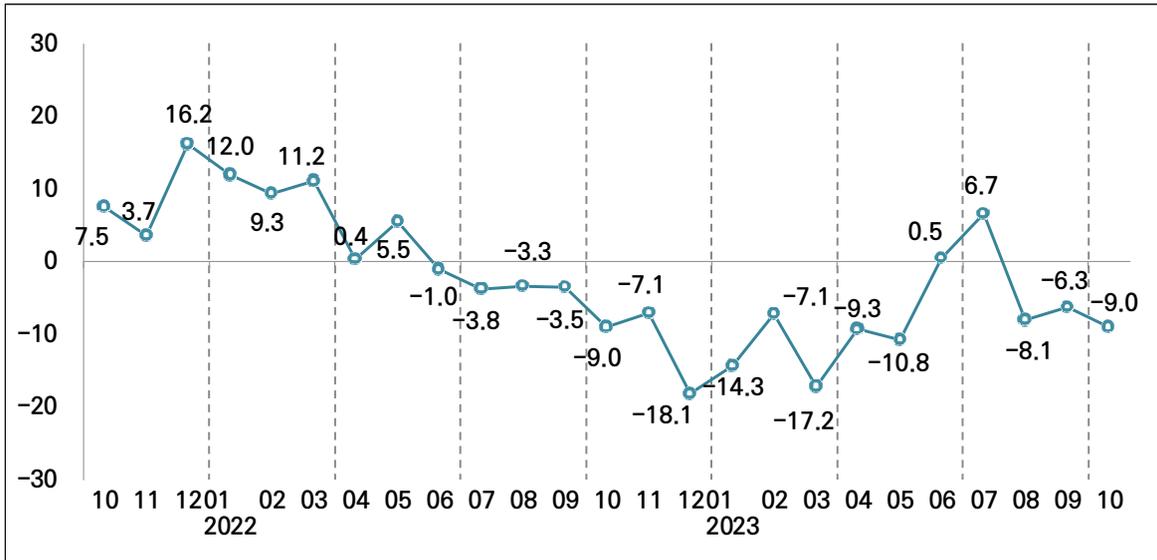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총지수	107.8	107.8	110.5	94.4	93.6	104.8	100.2	92.0	104.8	110.6	99.0	102.0	98.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9.0	-7.1	-18.1	-14.3	-7.1	-17.2	-9.3	-10.8	0.5	6.7	-8.1	-6.3	-9.0

주 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 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2]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원지수)

3)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3년 1월 자료 공표 시 대표품목 변경에 따른 기중치 변경,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이 변경(단위: 2020=100)되었고, 2020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20년 이후 지수는 1자리로 작성됨. 전국지수는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역 지수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됨.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월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10월에도 140을 상회

-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⁴⁾는 140.4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
 - 2023년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15.6%를 기록하며 2023년 최고치를 경신
 - 10월에도 전년 동월보다 7.8% 상승한 140.4를 나타내며 최근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표 3]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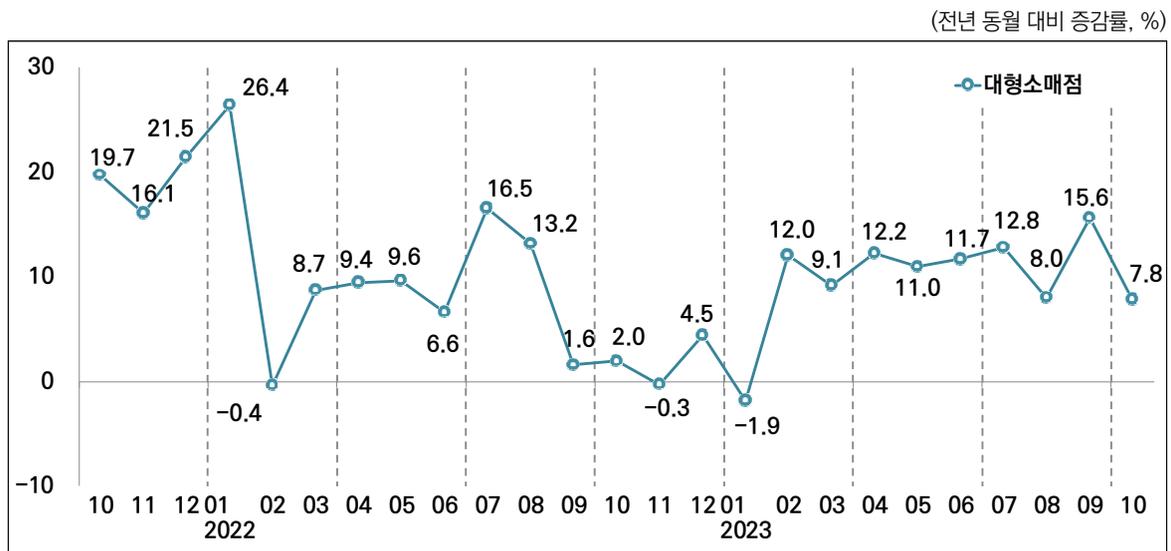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8월	9월 p)	10월 p)
대형소매점 경상지수	120.1	124.2	130.2	129.7	143.6	140.4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3.2	1.6	2.0	8.0	15.6	7.8

주 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 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는 2분기부터 반영 예정)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음

- 부문별로는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3년 10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61.1로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
 - 서울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10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은 크게 축소

[표 4] 서울시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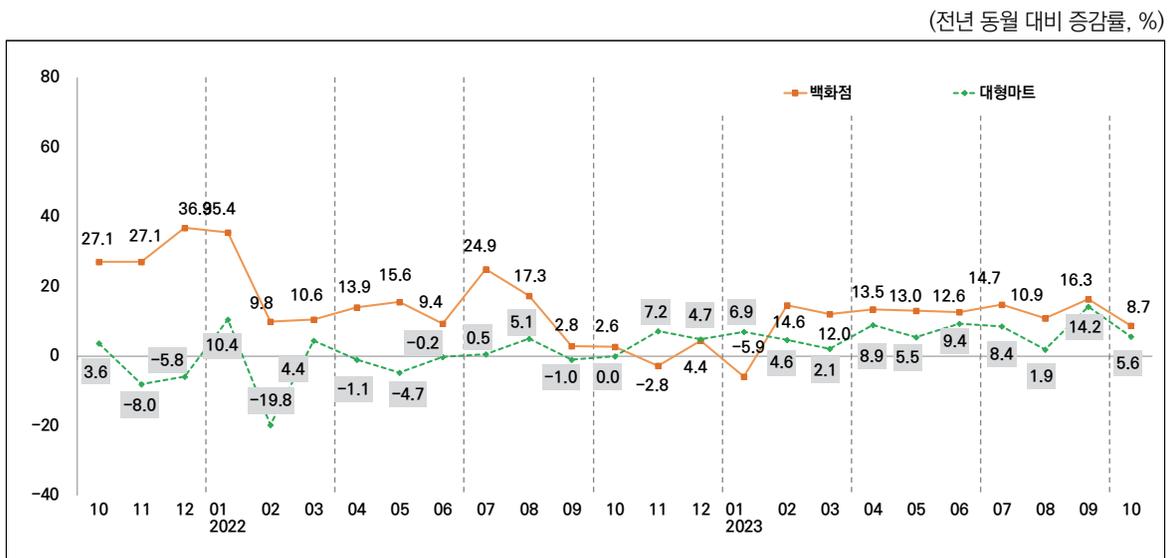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8월	9월 p)	10월 p)
백화점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27.2 (17.3)	133.3 (2.8)	148.2 (2.6)	141.1 (10.9)	155.0 (16.3)	161.1 (8.7)
대형마트 경상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07.3 (5.1)	107.7 (-1.0)	97.8 (0.0)	109.3 (1.9)	123.0 (14.2)	103.3 (5.6)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서울의 대형소매점 부문별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10월 들어 전체 취업자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층 취업자도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23년 10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⁵⁾는 522만 3천 명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2023년 10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의 510만 7천 명보다 11만 6천 명이 증가한 522만 3천 명으로 나타나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전월 대비 서울의 전체 취업자는 4만 2천 명 증가
-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청년층 취업자」도 지난 8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유지
 - 2023년 10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의 86만 7천 명보다 3만 5천 명 증가한 90만 2천 명으로 조사
 - 2022년 3월부터 17개월간 감소세를 이어나온 「청년층 취업자」는 2023년 8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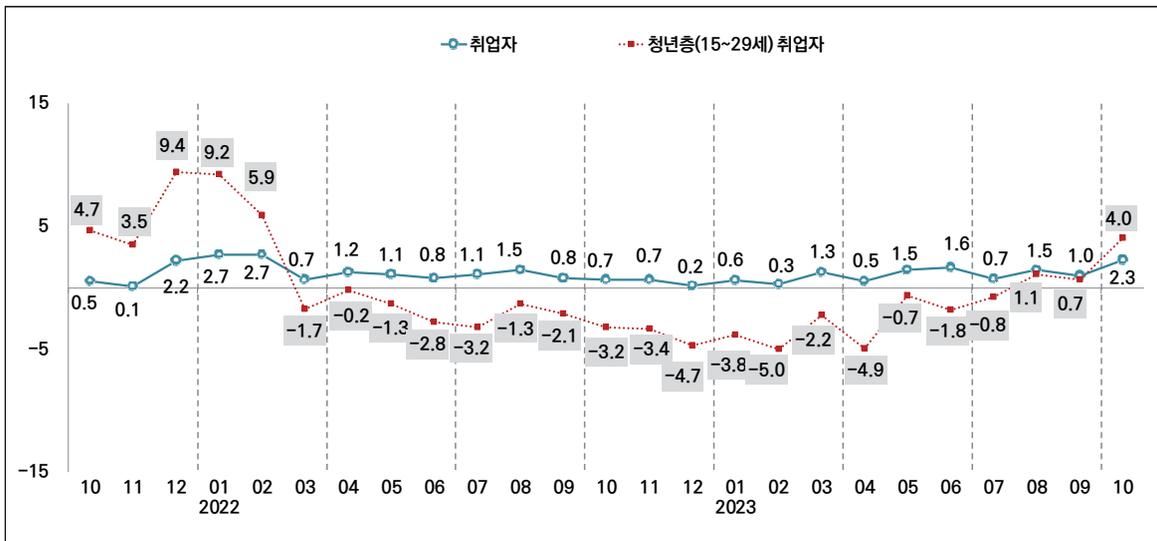
[표 5] 서울시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계	5,127	5,130	5,107	5,203	5,181	5,223
청년층(15~29세) 취업자	904	890	867	914	896	9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울의 취업자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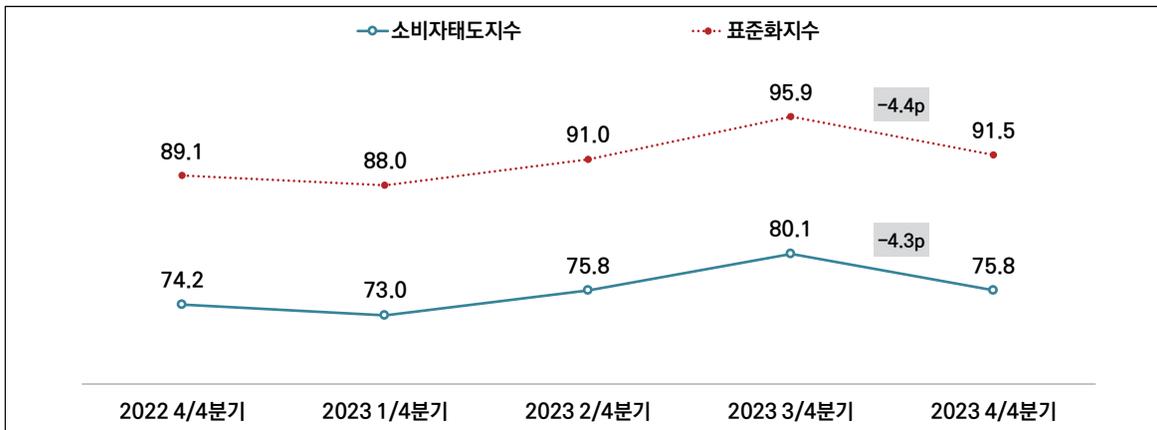
5)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I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전 분기 대비 하락

2023년 3/4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⁶⁾는 4/4분기 들어 하락 전환

-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⁷⁾를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4.4p 하락한 91.5를 기록
 - 2023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 기준 91.5로, 2분기 만에 하락으로 전환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의 지수가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10.0p 감소하며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50대가 전 분기 대비 7.7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그림 6]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표 6] 가구소득 및 가구주 연령별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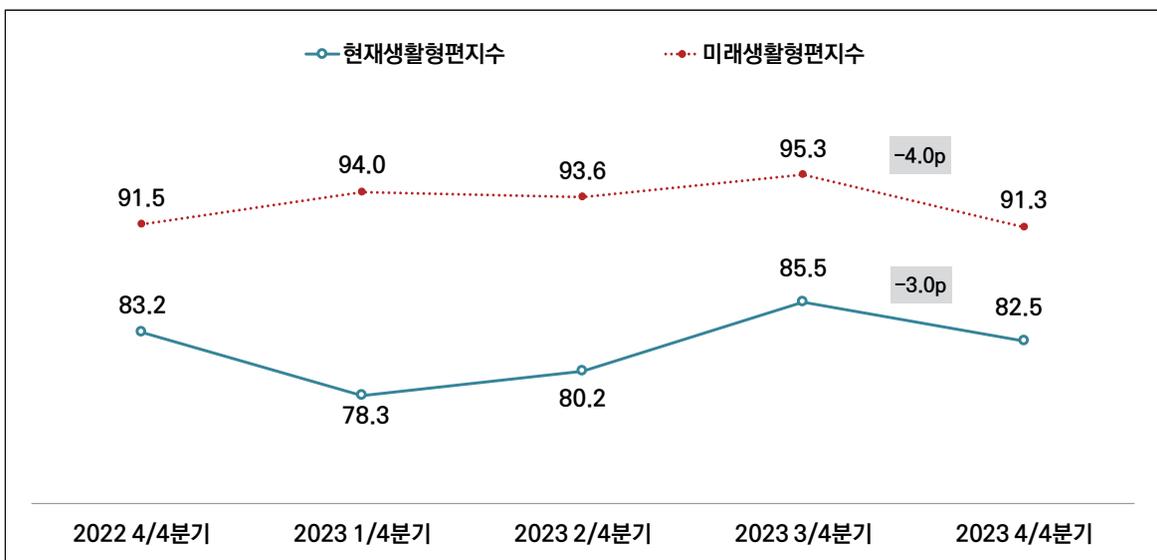
구분		2023년 3/4분기	2023년 4/4분기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81.8	75.7	-6.1
	2,400~3,600만 원 미만	76.4	75.2	-1.2
	3,600~4,800만 원 미만	80.5	70.5	-10.0
	4,800~6,000만 원 미만	78.9	75.2	-3.7
	6,000~7,200만 원 미만	79.8	77.6	-2.2
	7,200만 원 이상	81.8	77.2	-4.6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85.7	81.9	-3.8
	40대	75.1	72.5	-2.6
	50대	73.4	65.7	-7.7
	60대	80.6	77.2	-3.4

6) 5가지 개별 CSI 지수를 통해 산정되는 종합 소비자 체감경기지수(CSI)로서, 소비자태도지수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고

7)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2023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도 모두 하락⁸⁾

-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각각 82.5, 91.3으로 두 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3.0p 내린 82.5로 2분기만에 상승세를 반납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91.3으로 전 분기 대비 4.0p 하락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6.5p)와 50대(-5.5p)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대부분의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을 보였고, 그 중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9.5p)와 50대(-9.8p)에서 가장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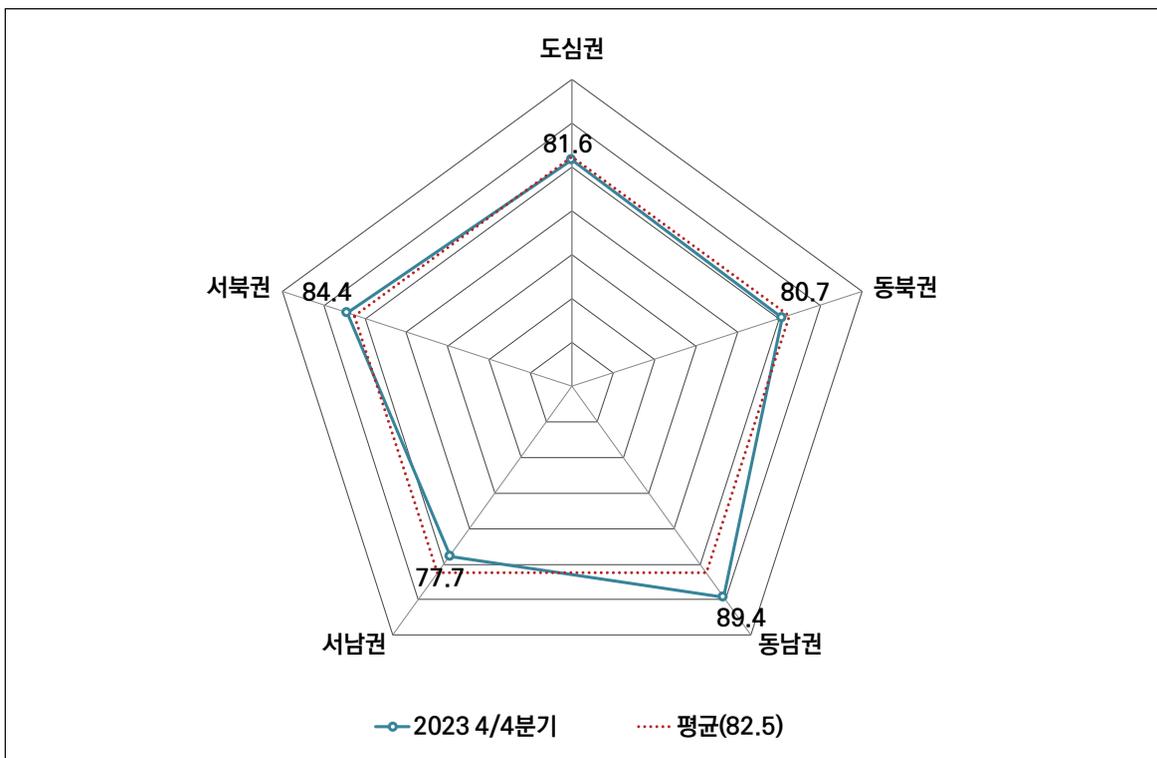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2023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이 가장 높고, 서남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
 - 동남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이어 89.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서북권 84.4, 도심권 81.6, 동북권 80.7, 서남권 77.7 순으로 조사
- 하락폭으로는 5개 권역 중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대부분의 권역별 등락폭은 전 분기와 비교해 변화가 미미했지만, 서남권만 -8.4p(3/4분기 86.1 → 4/4분기 77.7)의 큰 변동폭을 보임

8) '생활형편'은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가계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으로 살림살이의 형편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생활형편(1년 전 대비 현재의 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현재 대비 1년 후 생활형편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표 7] 가구소득 및 가구주 연령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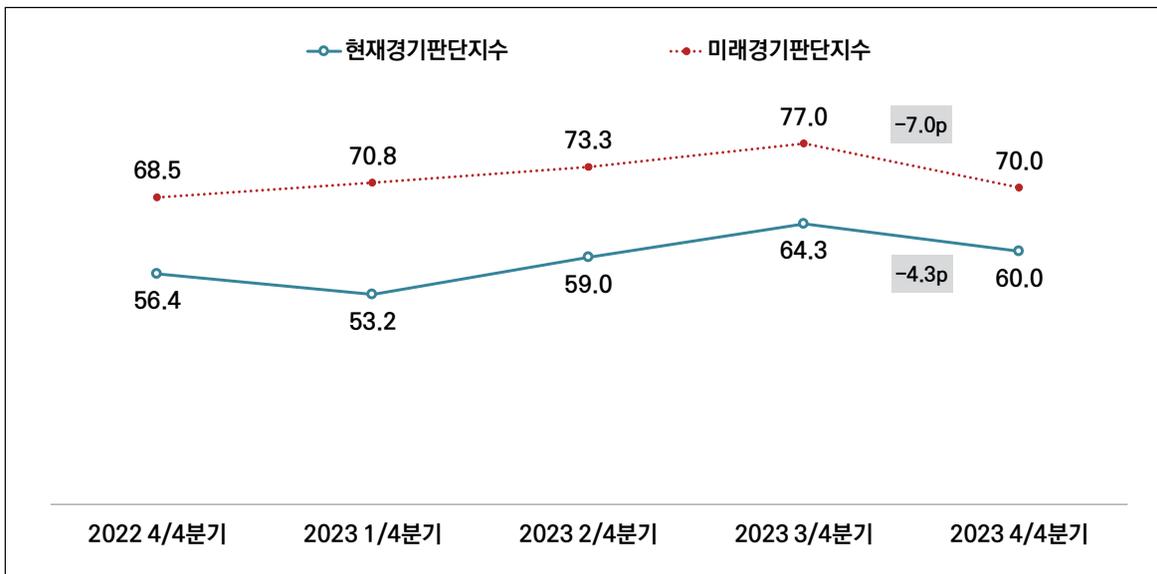
	구분	2023년 4/4분기	전 분기 대비	2023년 4/4분기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73.7	-6.5	91.7	+1.7
	2,400~3,600만 원 미만	81.8	+0.4	91.7	-3.5
	3,600~4,800만 원 미만	81.7	-2.6	84.3	-9.5
	4,800~6,000만 원 미만	78.9	-3.9	88.7	-5.9
	6,000~7,200만 원 미만	86.5	-3.2	91.4	-0.9
	7,200만 원 이상	86.3	-3.3	94.8	-6.1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92.1	-2.9	98.3	-4.2
	40대	79.5	-3.1	89.6	0.4
	50대	71.4	-5.5	81.5	-9.8
	60대	77.8	-0.4	89.0	-2.2



[그림 8] 서울의 5개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2023년 4/4분기에는 서울의 현재와 미래 경기판단지수 모두 하락 전환⁹⁾

-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0.0으로 전 분기 대비 4.3p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만이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전 분기 대비 모두 하락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 (-12.4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하락폭은 50대가 -6.3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 분기 대비 7.0p나 하락하며 3분기 동안 이어온 상승세를 반납
 - 모든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그중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14.2p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 연령대별에서도 모든 계층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중 50대(-12.7p)는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그림 9]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9) '서울지역 경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경기(1년 전 대비 현재의 서울지역 경기)와 미래 경기(현재 대비 1년 후 서울지역 경기 전망)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표 8] 가구소득 및 가구주 연령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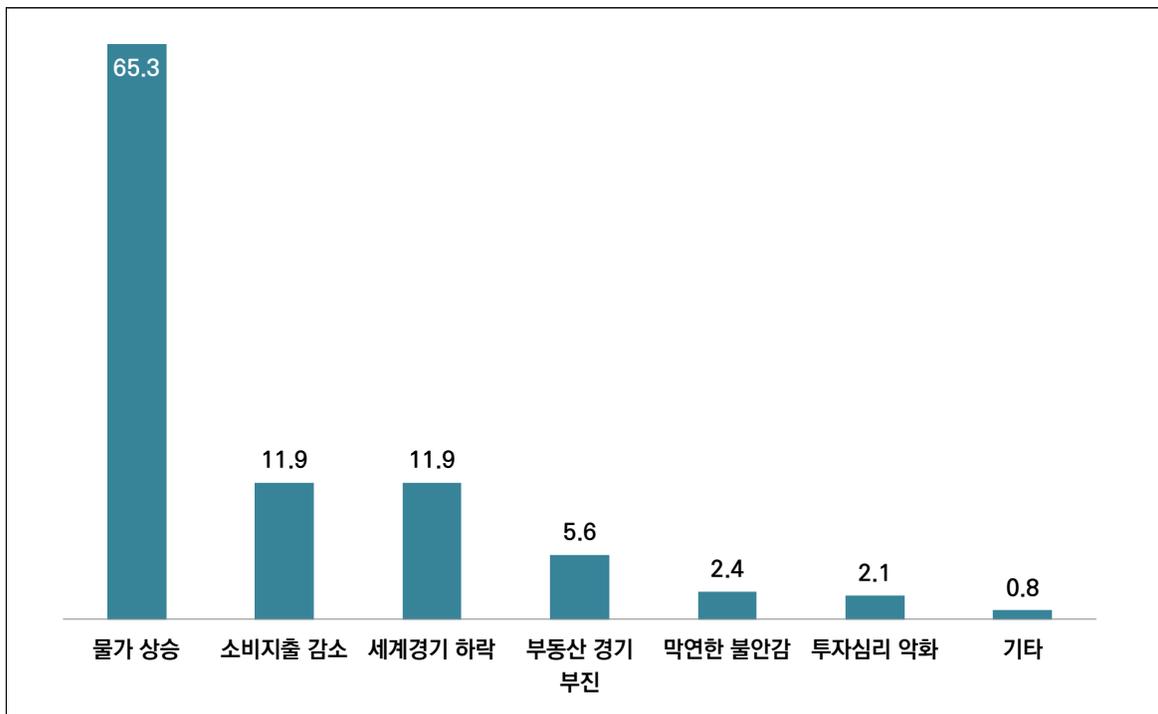
	구분	2023년 4/4분기	전 분기	2023년 4/4분기	전 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58.0	-12.4	75.3	-7.7
	2,400~3,600만 원 미만	60.8	+0.7	68.5	-6.5
	3,600~4,800만 원 미만	57.5	-8.2	62.7	-14.2
	4,800~6,000만 원 미만	62.7	+1.3	71.4	-2.5
	6,000~7,200만 원 미만	62.6	-2.7	72.1	-3.7
	7,200만 원 이상	58.4	-5.5	69.3	-8.2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67.6	-2.5	73.2	-5.5
	40대	56.0	-5.0	64.9	-3.7
	50대	48.2	-6.3	60.1	-12.7
	60대	60.8	-5.2	79.3	-7.3

4분기 들어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¹⁰⁾

-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1년 후 부진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물가 상승'에 대한 응답이 65.3%를 차지했고, '소비지출 감소'(11.9%)와 '세계경기 하락'(11.9%) 등도 우선적 이유로 응답
 -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예상한 주된 이유로 '물가 상승'을 지목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폭이 둔화되며 11월에 3%대로 재진입
 -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7월 2.9% → 8월 3.8% → 9월 4.0% → 10월 4.0% → 11월 3.7%¹¹⁾

(단위: %, n=6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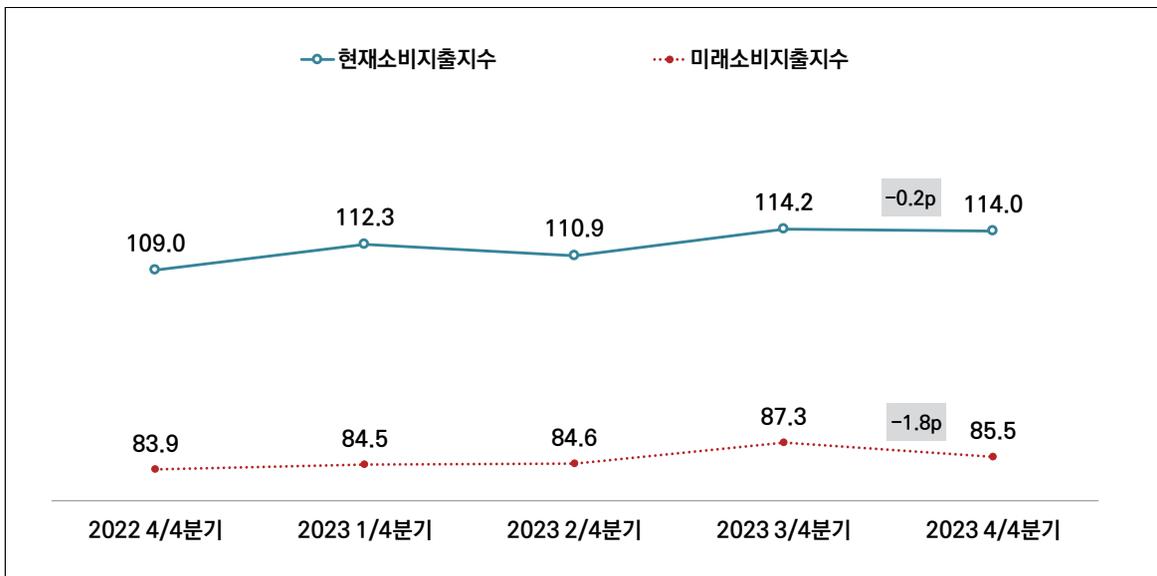
[그림 10] 서울지역 경기가 1년 후 악화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

10) 1년 후 미래경기에 대해 서울시민의 14.5%(174명)는 '호전', 47.3%(567명)는 '악화'를 전망했는데, 이 가운데 미래생활형편이 호전 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함

11)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보합,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소폭 하락¹²⁾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114.0을 기록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3.9p)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3.6p)의 하락폭이 가장 크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전 분기 대비 변화가 미미
 - 연령별로는 40대(-2.3p)와 60대(-0.4p)가 하락하고, 나머지는 소폭 상승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5.5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과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만이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계층은 모두 하락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5.6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모두 하락한 가운데, 40대와 50대에서 2.2p와 2.1p가 내려 가장 크게 하락



[그림 11]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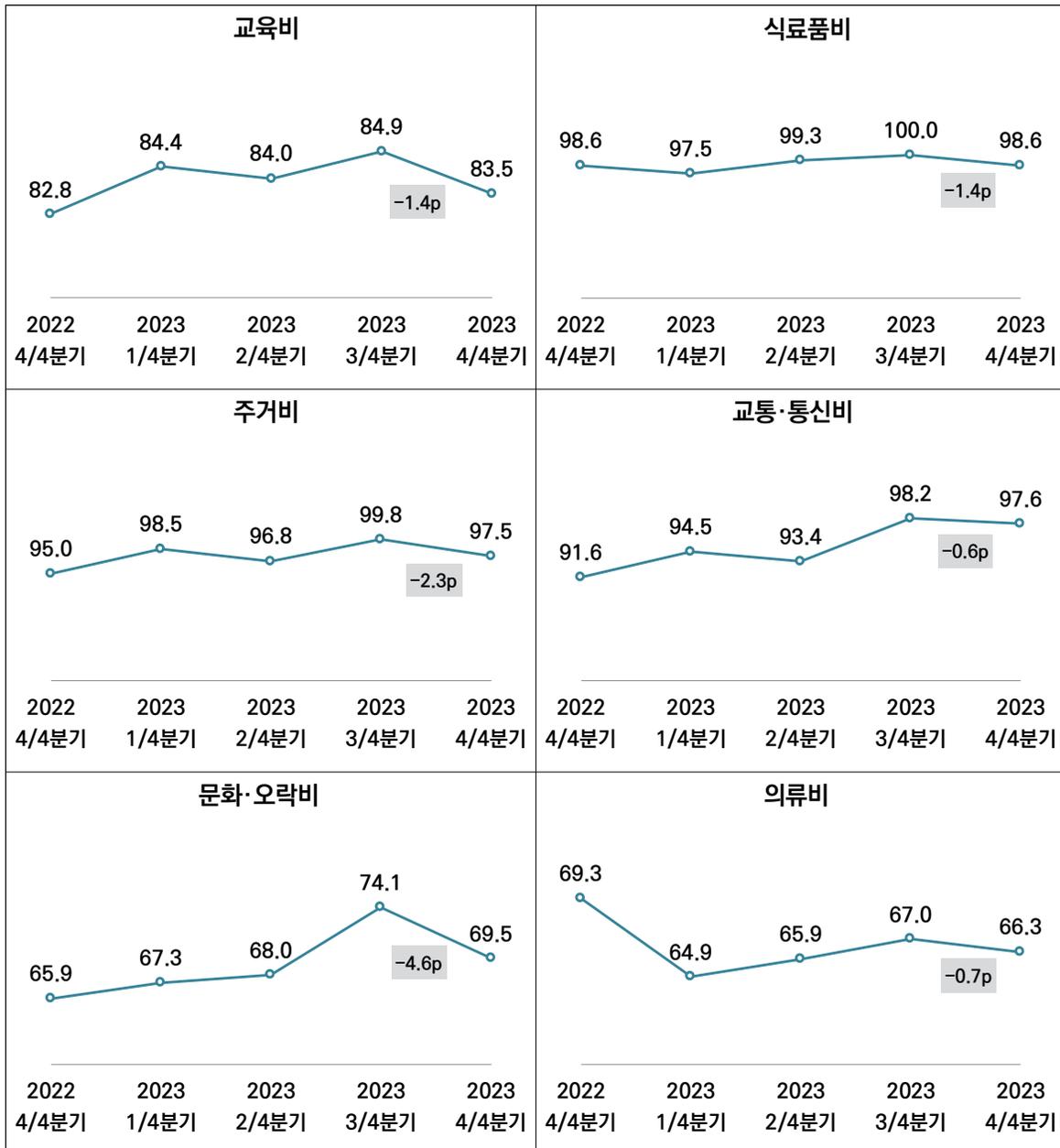
12) '소비지출'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소비지출(1년 전 대비 현재의 소비 지출)과 미래소비지출(향후 1년 후 소비지출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표 9] 가구소득 및 가구주 연령별 서울의 현재 및 미래소비지출지수

	구분	2023년 4/4분기		2023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가구 소득	2,400만 원 미만	107.3	-1.2	81.7	-2.0
	2,400~3,600만 원 미만	114.1	+1.6	82.4	+1.3
	3,600~4,800만 원 미만	114.9	+1.3	83.6	-5.6
	4,800~6,000만 원 미만	116.2	-3.6	85.0	+0.5
	6,000~7,200만 원 미만	111.6	-3.9	84.9	-5.1
	7,200만 원 이상	116.9	+2.3	90.2	-1.1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119.2	+0.1	89.8	-1.6
	40대	117.0	-2.3	88.7	-2.2
	50대	110.5	+1.7	82.1	-2.1
	60대	103.9	-0.4	77.0	-1.5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문화·오락비’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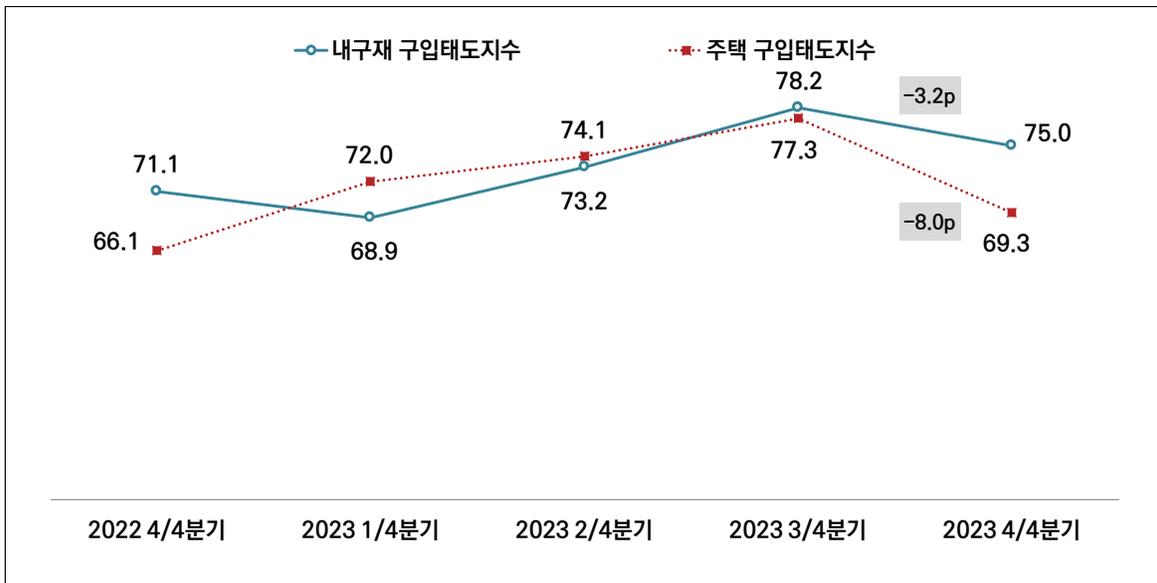
- 2023년 4/4분기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와 대조적으로 모든 품목이 일제히 하락
 - 모든 품목의 미래소비지출지수가 하락했지만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주거비’는 90점대
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60점대로 하락
 - ‘문화·오락비’의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4.6p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그림 12]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4/4분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의 구입태도지수¹³⁾도 하락

- 2023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75.0으로 전 분기 대비 3.2p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5.2p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가 하락한 가운데 50대에서 가장 크게 하락
- 2023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8.0p에 달하는 하락을 보여 지난 3분기 동안 이어온 상승분을 반납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특히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13.3p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가장 크게 하락
 -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2023년 5월 95.7 → 6월 95.7 → 7월 95.9 → 8월 96.2 → 9월 96.5 → 10월 96.7 소폭 상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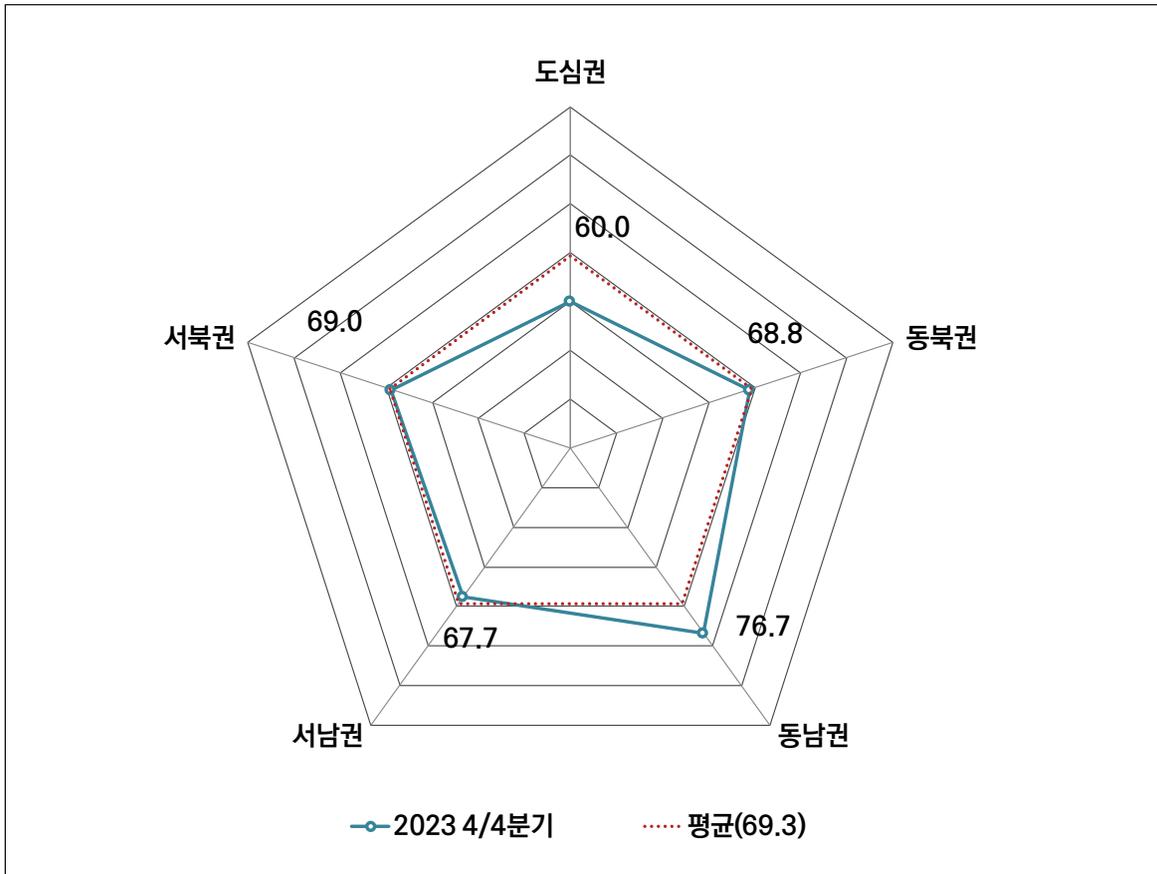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13)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지금이 가구에서 사용하는 대형물건(예: 가구, 승용차, 냉장고 등)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적정 시기인가를 조사하여 지수로 산출한 것임. 지수는 기준치 100보다 클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임

14)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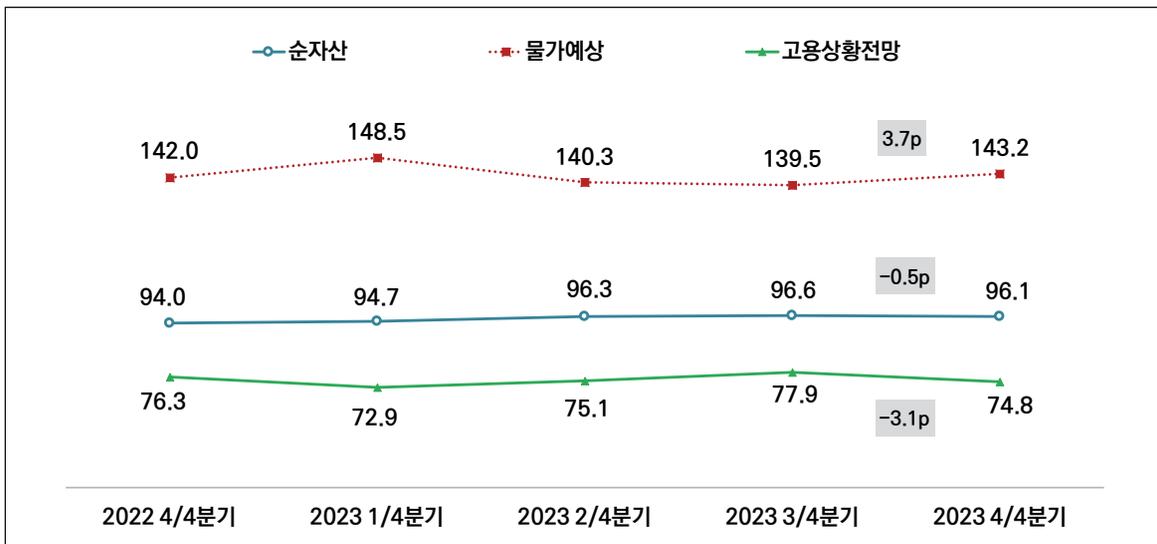
- 권역별로 살펴본 서울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4/4분기 들어 전 분기 대비 모두 하락
 -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76.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북권(69.0), 동북권(68.8), 서남권(67.7), 도심권(60.0) 순으로 나타남
 - 모든 권역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중 도심권은 10.8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그림 14] 서울의 5개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4/4분기에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한 반면, 물가예상지수는 상승¹⁵⁾

- 2023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6.1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가구소득별 변동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6.0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을 보임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로 ‘소득 감소’가 27.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지출 증가’(23.1%), ‘부채 증가’(20.7%)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4.8로 전 분기 대비 3.1p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3.4p 내려 가장 큰 하락을 보임
 -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고,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함
- 「물가예상지수」는 143.2로 전 분기 대비 3.7p 상승하며 다시 140대로 진입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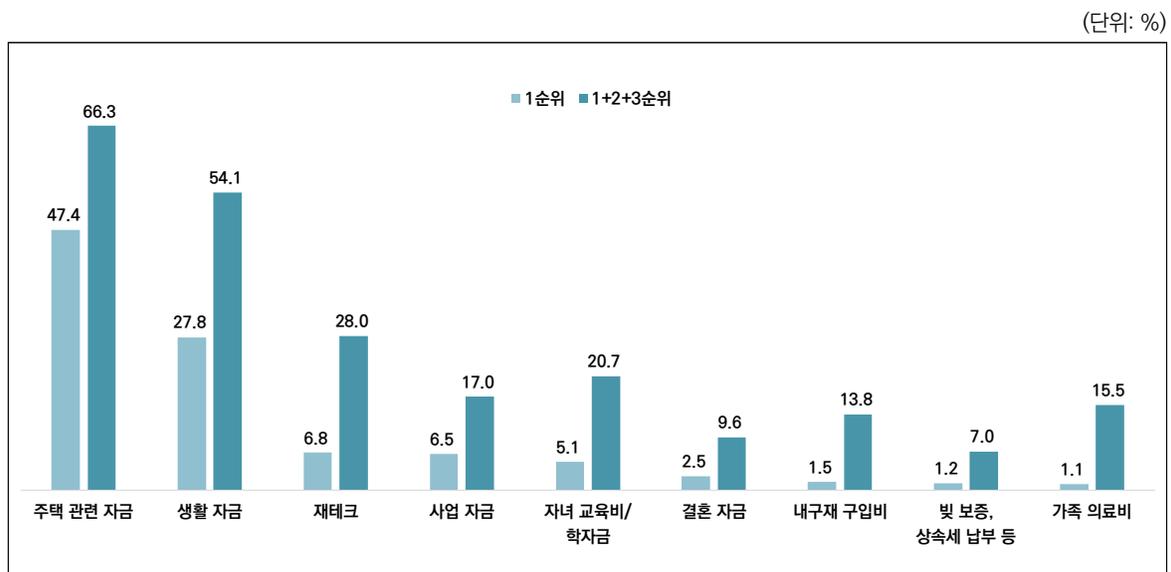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순자산·고용상황전망·물가예상지수

15) '순자산'이란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현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현재의 순자산 증감 정도를 조사하여 순자산지수를 산출함. '물가'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물가 예상 정도를 조사하여 물가예상지수를 산출함. 고용상황전망 지수는 과거 1년 동안의 고용상황 정도를 기준으로 향후 1년 후 예상되는 고용상황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가계부채의 주된 이유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2023년 4/4분기 현재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3.9%로 전 분기 대비 0.9%p 감소
 - 가구소득별로는 3,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평균 21.6%로 전 분기에 조사된 21.2%와 비교해 소폭 상승¹⁶⁾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로는 '원리금 상환'이 6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이자만 상환'(32.5%), '상환 안 함'(3.4%) 등의 순서를 나타냄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압도적 비중 차지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47.4%)과 '생활 자금'(27.8%)이었는데, 전 분기에 비해 응답 비율은 둘 다 소폭 증가
 -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 용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의 비중이 '주택 관련 자금'의 비중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복수 응답(1+2+3순위)의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자금'(66.3%), '생활 자금'(54.1%)과 '재테크'(28.0%)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6]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16)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 종합 소비자 체감 경기지수(CSI)인 ‘소비자태도지수’는 아래의 5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단, 특정 개별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 적용)
 - 5개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판단지수, 내구재구입지수
 - 산출 방식

$$\text{소비자태도지수} = \frac{(a + b + c + d + e)}{5}$$

a : 현재생활형편지수	b : 미래생활형편지수	c : 현재경기판단지수
d : 미래경기판단지수	e : 내구재구입지수	

- 위 5개 항목별($a \sim e$) CSI는 소비자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5점 척도로 질문하되, 각 척도별로 0~200점의 수치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
 - ‘매우 감소, 매우 악화’ 0점, ‘다소 감소, 다소 악화’ 50점, ‘동일, 유지’ 100점, ‘다소 증가, 다소 호전’ 150점, ‘매우 증가, 매우 호전’ 200점

$$CSI_{a \sim e} = \left(\frac{0 \sum_{ij \in n_1} n_{ij1} + 50 \sum_{ij \in n_2} n_{ij2} + 100 \sum_{ij \in n_3} n_{ij3} + 150 \sum_{ij \in n_4} n_{ij4} + 200 \sum_{ij \in n_5} n_{ij5}}{\sum_{ij} n} \right)$$

i : 권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text{도심권}), 2(\text{서북권}), 3(\text{서남권}), 4(\text{동남권}), 5(\text{동북권})$)
j :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j = 1(20\text{대}), 2(30\text{대}), 3(40\text{대}), 4(50\text{대}), 5(60\text{대})$)
n_{ij} : i 권역, j 가구주 연령 그룹 내 조사된 응답 가구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 가구 수 ($(n_1, n_2, n_3 \dots n_n) \in n$: 문항별 조사된 응답 가구 수)

부록 2. 2023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시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우리 조사와 유사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임
 - 한국은행의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1로 전월 대비 1.6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2년 4/4분기	89.1	83.2	91.5	56.4	68.5	71.1	66.1
2023년 1/4분기	88.0	78.3	94.0	53.2	70.8	68.9	72.0
2023년 2/4분기	91.0	80.2	93.6	59.0	73.3	73.2	74.1
2023년 3/4분기	95.9	85.5	95.3	64.3	77.0	78.2	77.3
2023년 4/4분기	75.8	82.5	91.3	60.0	70.0	75.0	69.3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2년 4/4분기	109.0	83.9	94.0	76.3	142.0
2023년 1/4분기	112.3	84.5	94.7	72.9	148.5
2023년 2/4분기	110.9	84.6	96.3	75.1	140.3
2023년 3/4분기	114.2	87.3	96.6	77.9	139.5
2023년 4/4분기	114.0	85.5	96.1	74.8	143.2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임 (2023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23년 11월 1일~ 11월 15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